6·3 지선…참일꾼 찾자 〈7〉 전남 6개 군수

김성 군수 재선 겨냥…전·현직 의원 '도전장'

장흥군수

윤명희·곽태수·왕윤채와 경선
무소속 사순문과 본선 대결

현직 김성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장흥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과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며 초반부터 다자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는 김성 군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희 전남도의원, 곽태수 전 전남도의원, 왕윤채 전 장흥군의회 의장, 무소속 사순문 전 전남도의원 등 모두 5명이다.

김성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중앙당과의 직결된 정치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재임 기간 전남소방본부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유치, 천관산 HUG벨트 조성, 전남형 만원주택 도입,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고 결혼장려금 지급 등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킨 점도 현직 프리미엄으로 꼽힌다.

윤명희 전남도의원은 도당 여성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인구소멸지역 연구인력 요건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국가 정책 성과를 내온 점을 내세우며 실무형 정책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곽태수 전 전남도의원은 군의회와 도의회를 두루 거친 의정 경험과 지역 조직력을 강점으로 '민생 중심 행정'을 내세운다. 왕윤채 전 장흥군의회 의장은 3선 의원과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빈집·고독사 관련 조례를 주도하며 생활 밀착형 정치를 강조한다. 무소속 사순문 전 전남도의원은 중앙부처 근무와 도의회 활동 경력을 앞세워 청년·문화·균형발전 정책과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성

곽태수

윤명희

왕윤채

사순문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프리미엄과 중앙당 네트워크, 정책 전문성, 지역 기반, 무소속 변수까지 맞물리며 장흥군수 선거가 예년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김희수 군수 재선 도전…예측 불허 다자구도

진도군수

김인정·김희동·이재각 등 경쟁
조국혁신당·무소속 후보 변수

김희수

김인정

김희동

이재각

진도군수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희수 군수를 중심으로 여권 후보군과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가세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정 전남도의원과 김희동 전 전남도의원, 군 출신인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주요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현직인 김희수 군수는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 무소속으로 2022년 군수에 당선된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며 당내 경선 참여가 유력하다. 민선 8기 들어 군 예산의 30% 이상을 농수산업에 투입해 기반 확충과 유통망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직권 남용 등 사법리스크가 최대 걸림돌로 거론된다.

김인정 전남도의원도 강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6~8대 군의원을 거쳐 현재 12대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안 해결 능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물김 가공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해 200억원 규모의 개선 예산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 사례다. 그는 가공·유통 구조 고도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희동 전 전남도의원은 행정과 의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육군 준장으로 전역하기까지 34년간 군과 정부 요직을 거친 이력의 소유자다. 병무청장 재직 당시 소통형 리더십을 평가받았다.

혁신당도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를 출범하고 진도군수 후보 적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현직 대 도전자 구도로 보지 않는다. 김희수 군수의 현직 프리미엄에 맞서 김인정 의원의 정책 해결력, 김희동 전 의원의 입법·행정 경륜, 이재각 전 청장의 중앙 경험이 맞붙는 다자 경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최대 변수로, 당내 조직력과 지지층, 중앙당과의 연결망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김철우 3선 도전…민주당 공천경쟁 치열

보성군수

임영수·선형수·윤영주 도전장
미래비전 제시가 표심 가를 듯

김철우

선형수

윤영주

임영수

김철우 군수의 3선 성공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후보군은 김철우 군수를 비롯해 임영수 전 전남도의원, 선형수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 등이다. 이밖에도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김철우 군수는 2018년 첫 당선 이후 2022년 무투표 재선에 성공하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종합청렴도는 취임 당시 4등급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호남권 유일 1등급을 달성했고, 이후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해 SOC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

임영수 전 전남도의원은 가장 중량감 있는 도전자로 평가된다. 보성군의회 4선, 전남도의회 2선 등 6선 경력의 관록을 앞세워 두터운 인맥과 조직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그는 "전시행정이 아닌 현실 행정"을 강조하며 지역 밀착형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추석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선형수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문화·공동체 의제를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택했다. 보성 출신으로 군민상 수상 경력이 있으며, 체육·청소년·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경험을 살려 청년·문화·교육 분야 공약으로 '함께 사는 보성'을 제시하고 있다.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는 복내면 출신으로 35년간 전남도와 여러 시·군을 거친 행정 전문가다. 영광군 투자유치과장 시절 대규모 투자기금을 조성했고, 진도부군수 재직 당시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을 이끌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벌교 꼬막 산업 육성, 주민조합형 태양광, 웰니스 산업, 주민기본소득 등을 제시하며 행정형 리더십을 강조한다.

민주당 경선 결과가 곧 본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보성군수 선거는 현직의 3선 도전과 중량급 도전자들의 맞대결로 전개될 전망이다. 인물 경쟁을 넘어, 보성의 미래 비전과 군정 방향을 둘러싼 선택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3선 연임 제한 무주공산…경선이 곧 결선

완도군수

이철·김세국·지영배 등
여 후보자만 7명 불꽃경쟁

김세국

김신

신의준

우홍섭

신우철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면서 자리가 비었고, 이를 두고 지역 정가 안팎에서 7명의 출마 예정자가 거론되며 판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결선을 대신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가장 앞서 거론되는 인물은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다. 군의회와 도의회를 거친 정치 이력과 조직 기반을 갖춘 인물로, '제2의 장보고 시대' 구상을 내세우며 비전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김세국 전 전남도 감사관은 빈집, 해양폐기물 등 지역 현안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청렴하고 유능한 행정'을 전면에 내세운다. 현역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수산업 부흥이 완도의 미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연륙·연도교 건설과 균형개발 공약으로 도서 지역 표심을 공략한다.

이철

지영배

허궁희

김신 전 완도군의원은 청년회의소(JCI)와 수산단체 회장 경력으로 다져진 인맥과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우홍섭 전 진도부군수는 정무 감각과 해양수산 행정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최근 완도 내 각종 행사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은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업무에 관여한 기획·추진형 인물로 평가받는다.

허궁희 완도군의원은 군의회 의장 경험과 전복 등 양식 현장 이해도를 앞세운 '현장형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다자 구도 속에서 민주당 경선 경쟁은 본선 못지않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명현관 군수 3선 가도…정치인·관료 출신 추격

해남군수

이길운·김성주·김병덕 도전장
조국혁신당, 서해근 출마 유력

명현관

김성주

김병덕

박철환

이길운

서해근

명현관 군수의 3선을 다른 후보군이 저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평가받아 온 현직 프리미엄이 다시 한 번 작동할지, 아니면 변화 요구가 힘을 얻을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명 군수는 해남 솔라시도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서남해안 관광 중심지화 전략 등 대형 현안이 진행 중인 만큼, 군정 연속성을 내세운 3선 도전 명분도 분명하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는 도전자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길운 해남군체육회장은 군의원 3선과 전반기 의장 경력을 갖춘 인물로, 지역 체육계를 기반으로 한 조직력과 의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성주 전 해남군수협 조합장은 수산식품 산업 거점 조성, 전복 군납사업 유치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수산업 중심 지역경제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덕 전 해남군의회 의장은 재선 군의원과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력을 앞세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서해근 해남군의원은 34년 공직 생활을 거쳐 지방의회에 입성한 사례로, 문화관광과장과 면장 등을 지낸 현장 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조국혁신당으로 출마가 유력하다.

이번 해남군수 선거는 현직의 성과와 안정성, 도전자들의 변화와 전문성이 맞서는 구도다. 유권자들이 연속성과 변화 중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해남의 향후 4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성과 vs 경험 vs 신인'…3자 구도 판세 요동

영암군수

우승희 군수 재선 도전
전동평·최영열과 경선

우승희

전동평

최영열

영암군수 선거가 현직과 전직, 행정 관료 출신 인사 간 3자 구도로 형성되며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우승희 군수를 상대로 전동평 전 군수와 최영열 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승희 군수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남도의회 의원,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거쳐 민선 8기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취임 이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며 대외 활동을 이어왔고, 군정에서는 재정 혁신과 국비 확보 성과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최근에는 '영암 에너지 자산지소 그린시티 100' 구상을 제시하며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 인프라 구축과 공공형 VPP 도입 등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전동평 전 군수는 민선 6·7기 영암군수를 지낸 경험을 앞세워 재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전남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적 활동을 이어왔다. 각종 행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공약 이행률 최고 등급, 민속씨름단 창단과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유치,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 등 지역 특화사업도 주요 이력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산업과 문화관광, 조선·자동차 산업을 연계한 '복지영암'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영열 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은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운다. 전남도청 재직 시절 정부합동평가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전국 1위를 이끌며 현장형 행정가로 평가받았고,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을 지내며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정책 조율 경험도 쌓았다. 현재는 영암군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를 현직의 성과, 전직의 경험, 행정가의 도전이 맞붙는 구도로 본다. 각 후보의 강점이 뚜렷한 만큼,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가 경선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